

어 : 이 현 나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1. 국어의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작문뿐 아니라 한문, 화법까지 출제되었다. 작문과 화법은 타 시험에 비해 국가직에서의 비중이 높는데 국어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직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특히 한자는 2010년 이후 6년 만에 출제되었다는 게 특징이다.

2. 사고력, 독해력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제대로 읽고 정확히 생각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세를 보였다.

보조사의 '의미'를 묻는 문제(2책형 2번), 지문의 '궁극적'인 핵심을 묻는 문제(2책형 5번), 안긴 문장의 성분을 묻는 문제(2책형 16번), 협력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2책형 20번) 등은 단편적으로 답을 찾는 데 익숙한 학생에게는 불리한 문제였다.

3. 경향이 바뀌었다.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영역별 세부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국가직의 한자성어는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사필귀정'이 답이어서 쉽게 맞힐 수 있었다. 띄어쓰기 역시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낮았다. 반면 꾸준히 출제되던 고전시가와 비문학 영역의 순서잡기가 출제되지 않았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한자가 출제되는 등 세부 경향은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4. 정답은 고른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문제이니만큼 답선지를 모두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헛갈리고 어려워도 답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답은 비교적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어서 평균 점수는 떨어질 수 있겠으나 고득점자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역별 분석-2책형 기준]

2015		2016	
문법+규범 [30%]		문법+규범 [25%]	
독해 [50%]	비문학 [30%]	독해 [45%]	비문학 [20%]
	문학[20%]		문학[25%]
작문[10%]		작문+화법[10%]	
어휘[10%]		어휘+한자[20%]	

* 영역별 변화

I 문법+규범: 5문항 (25%)

1. 문법: 2문항 (10%)

- 2번: 보조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의미'를 물었다는 점이 새로우나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음.
- 16번: 안긴 문장의 성분을 묻는 문제. 두 가지(절, 성분)를 판단해서 풀어야 하는 고난도 문제. ④의 경우 안긴 문장이 아닌, 이어진 문장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문제의 함정.

2. 규범: 3문항 (15%)

- 1번: 외래어 표기. '슈림프'를 외웠거나 자음 앞 [j]는 '슈'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음.
- 11번: 띄어쓰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라면 어렵지 않게 답이 보이는 문제. '그것'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 13번: 표준어. 다소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에게 유리함.

II. 비문학: 4문항 (20%)

- 4번: 추론적 이해.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푸는 문제.
- 5번: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 핵심이 하나 나오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게 함정. 로마를 먼저 여행하라는 것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
- 6번: 제목을 묻는 문제. 지문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력(사명)이 뒷받침되어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 20번: 지문(협력의 원리)을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 각 격률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님.

III 문학: 5문항(25%)

- 7번: 현대시(엄마 걱정)의 시구의 이해. 숙제를 천천히 하는 이유를 시적 상황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
- 8번: 현대시(귀천)의 시어의 이해. '스러지는'에 주목하여 '순간성'과 관련된 것을 선택지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
- 14번: 고전수필(경설)의 이해. 거사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 18번: 현대소설(몰두)표현상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 해학성을 유발하는 이유를 찾는 문제. 다소 헛갈릴 만함.
- 19번: 현대소설(만세전)의 서술자에 대해 묻는 문제. 시점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음.

IV 작문+화법: 2문항(10%)

- 10번: 대담에 대해 옳은 내용을 찾는 화법 문제. 난이도 낮음.
- 15번: 퇴고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찾는 작문 문제 난이도 낮음.

V 어휘+한자: 4문항(20%)

- 3번: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 지문의 내용도 답선지의 내용도 쉬운 편.
- 9번: 한자어의 의미 관계. 어려운 단어가 제시됨. 난이도 높음.
- 12번: 고유어의 의미 묻는 문제. '앙갚음'의 맞춤법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음.
- 17번: 한자 문제. 한자 문제는 일단 고난도. '간섭'은 '사이[間]'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이용해 만든 함정이 있음.

1) 문 0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플래시
- ② shrimp-쉬림프
- ③ presentation-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뉴턴

01. [] 외래어 표기법 [난이도] 중

[정답] ②

[분석] 표기법이 (2책형 기준) 첫 문제로 나왔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 제시된 문제에 비하면 유형 자체는 간단한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단어를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는 익숙하지만 나머지는 이에 비해 낯선 느낌이 좀 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래시, 쉬림프’를 ①, ②에 나란히 배치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에서는 ‘sh[j]’의 발음이 관건인데 ①에서 어말에서는 ‘시’로 발음한다는 것을 떠올린 후 ②를 보면 자음 앞에서는 ‘슈’로 발음한다는 것을 떠올리기가 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 7급 국가직에서도 출제된 내용인데요, 당시에 출제된 ‘타슈켄트(Tashkent)’의 원리(자음 앞 ‘슈’)가 다시 응용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해설] shrimp[ʃrɪmp]의 외래어표기는 ‘슈림프’이다. [ʃ]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으므로 ‘쉬림프’가 아닌, ‘슈림프’가 맞는 표기이다.

[오답풀이]

- ① flash[flæʃ]-플래시: [ʃ]는 어말에서 ‘시’로 적는다. ‘플래쉬’가 아닌, ‘플래시’가 맞다.
- ③ presentation[prɛzɛntɛɪʃən]-프레젠테이션: e는 ‘에’로 적으므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 맞다.
- ④ Newton[nju : tɒn]-뉴턴: 발음기호를 생각하면 tɒn과 같이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오’를 붙여 적으므로 ‘뉴턴’이 아니라 ‘뉴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의 원칙’ 6장 (5)항에서는 영어의 ‘-ton’은 모두 ‘턴’으로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라 ‘Newton’의 표기는 ‘뉴턴’이다.

2) 문 0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__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02. [문법] 보조사의 의미 [난이도] 중

[정답] ①

[분석] 국가직 시험에서는 조사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중 보조사를 찾는 문제는 2012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보조사만 단독형으로 묻는 것은 4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유형 자체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보조사와 격조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보조사의 ‘의미’를 묻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설령 처음 보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유형이 새로울수록 답은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 역시 문제의 의도, 제시된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든)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의 첫 걸음은 ‘문장의 의미’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①에서는 보조사 ‘-는’의 의미를 ‘대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문장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에서는 ‘천천히 가다’와 ‘대조’되는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것은 ‘지각하겠다’라는 결과이죠. 따라서 ①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제시된 문장에서 ‘는’은 지각의 이유 ‘천천히 가다’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처럼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다.

[오답풀이]

- ② ‘웃지만 말고’에서 ‘만’은 웃는 행위 외의 다른 것은 없음을 의미하므로 ‘한정’의 뜻이다.
- ③ ‘단추대로’에서 ‘대로’는 ‘단추끼리’의 의미이므로 ‘따로따로’의 뜻이다.
- ④ ‘바람조차’에서 ‘조차’는 이미 비가 오는데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졌다는 의미이므로 ‘더함’의 뜻이다.

3) 문 0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03. [어휘-한자성어]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난이도] 하

[정답] ④

[분석] 익숙한 유형이기도 하고 제시된 한자성어도 어렵지 않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혹 ‘사씨남정기’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2013년의 ‘운니치자/ 아비규환/ 노기등천/ 백난지중’, 2014년의 ‘논공행상/ 초근목피/ 각고면려/ 반포지효’, 2015년의 ‘좌고우면/ 양중모색/ 침소봉대/ 연목구어’에 비해 답선지에 제시된 한자성어도 쉬운 수준이었습니다. 또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어 더욱 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인데요, 지문의 셋째 줄인 ‘그러나 결국은’ 이후가 지문의 핵심이 됩니다. 사악한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답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입니다.

[해설] 모함을 받았던 사씨는 누명을 벗고, 사악한 교씨는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정답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의 뜻인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오답풀이]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침을 안타까워하는 한탄.

4) 문 0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돌씩 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04. [비문학] 내용의 추론적 이해 [난이도] 중

[정답] ①

[분석] 아마 문제를 읽는 순간부터 조금 긴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론한 내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수험생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엔 문제를 읽을 때 ‘약간, 아주 약간’만 긴장해서 지문을 읽으면 좋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면 쓸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편하게 읽으면 지문을 다시 읽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둘씩조를 짓되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이란 표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보수를 파트너와 다르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2만 원을 주었다면 그의 파트너는 3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조당 5만 원이므로) 세 번째 포인트(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는 설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을 깨는 반응'입니다.**

연구원은 3만 원(평균 보수 이상)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상이지요. 하지만 그 참가자는 2만 5천 원(평균 보수)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했습니다. 과도한 보상에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보수 이하(2만 원)를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역시 덜 행복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반응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평균 보수 이상, 이하를 받는 것보다 평균 보수(적절한 보상)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과 관련이 깊은 답선지는 ①입니다. ①의 '공평한 대우'는 적절한 보상과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해설] 지문에서는 평균보수 이상(3만 원)을 받은 사람도 이하(2만 원)를 받은 사람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를 각각 과도한 보상과 부족한 보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지문의 내용을 통해 인간은 적절한 보상,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3만 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 하지 않았으므로 틀렸다.
- ③ 협력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양보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5) 문 0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05. [비문학] 핵심 내용의 파악 [난이도] 상

[정답] ②

[분석] (2책형 기준) 4번 문제를 풀고 나서 보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이란 표현을 놓친 학생에게는 발등을 찌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중요한 것이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 이 중에서 '궁극(窮極/ 마지막, 끝)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중간에 반전은 없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첫 문장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그러나'란 역접 표현이 나오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필자의 생각이 직접 제시된 부분이기니까요. 하지만 뒤에 중요 정보가 또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물었으니까요. 뒤에는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이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추천을 할 때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법**이기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이 무엇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로마를 가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②가 됩니다.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를 먼저 여행하라는 것이니 궁극적 목표는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됩니다.** 첫 번째 함정(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을 가볍게 피하고 두 번째 함정(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을 파악하는 것이 실력인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물었다는 것, 정답은 항상 문제의 의도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설] 문제에서 물은 것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가 로마는 제일 먼저 보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곳이 문명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인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이다.

[오답풀이]

- ① 지문의 네 번째 문장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에 나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내용이기 때문이 이를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로마의 자부심은 언급된 내용이지만 하나 핵심은 아니다.
- ④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은 나오나 '창조'는 언급되지 않았고 핵심도 아니다.

6) 문 0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06. [비문학] 제목의 추론 [난이도] 상

[정답] ③

[분석] (2책형 기준) 핵심 내용을 찾는 5번에 이어 '제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묻는 형식은 다르나 결국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문은 4줄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 부분이 핵심, 뒤 부분은 앞 부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 **제목은 앞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되, 그 느낌이 잘 안 오면 뒤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조국이 비운에 빠졌을 때 시인은 민족의 예언가이자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표현할 말을 답선지에서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해도, '사명'이라 생각해도 말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 둘 중에서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둘 중 하나가 고민될 때는 두 답선지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엔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운명과 사명의 쓰임을 알아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우선, ② 운명(運命)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의미합니다. 즉, 거스를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것이죠. 이에 반해 ③ **사명(使命)이란, 주어진 임무나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운명과 달리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는 '이미 주어진 것(운명)이나 후천적인 임무(사명)냐'인 것입니다.

이제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문에서는 시인이 '예언가가 될 수 있고,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천성과 후천성 중에 후천성에 무게가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답은 ③ 사명(使命)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설] 제시된 글은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의 시인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시인이 민족의 예언가,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글의 제목은 '시인의 사명(使命)'이 어울린다.

[오답풀이]

- ① 생명(生命): 목숨
- ② 운명(運命):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운(命運). 숙명(宿命).
- ④ 혁명(革命): 어떤 상태 따위에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 일.

7) 문 07. ㉠ ~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①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②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③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④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07. [] 시구의 이해 [난이도] 하**[정답] ③**

[분석] (2 기준) 처음 등장한 문학 문제입니다. 위의 2번 문제의 분석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우선 문장의 의미부터 떠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리는 독해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시는 항상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의 의도,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시에서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방에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는 ‘외로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는 숙제는 외로움을 잊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외로움을, 심심함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기 싫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지문에 없습니다. 또 만일 공부하기가 싫은 것이라면 안 하고 나가서 논다든가 잠을 자든가 낙서를 하든가 했겠지요. 공부하기 싫어서 미룬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하기 싫어서 ‘천천히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해설]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숙제를 ‘천천히 한다’는 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풀이]

- ① 엄마가 시장에 간 지 오래되었다는 점과 연결 지어 이해하면 ‘해가 시들’었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엄마는 시장에 갔고, 집에 아이를 돌볼 다른 보호자가 있지도 않다. 홀로 남겨진 상황이므로 ‘찬밥처럼’이란 표현에는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
④ 창에 금이 갔다는 것에서 가난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8) 문 0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① 어머니는 ____로 진주를 만드신다.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꽃처럼 여겨졌다.
④ 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08. [문학] 시어의 의미 [난이도] 중**[정답] ③**

[분석]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구의 의미를 묻는 7번과 달리 이 문제는 ‘시어’에 대한 물음이므로 **시어의 앞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는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스러지는 이슬’**과 함께요. 여기서 우리는 ‘이슬’이 순간적인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가 하늘로 가는 것 역시

‘소멸(죽음)’의 의미이고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역시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화자와 **‘이슬’은 이 ‘소멸성’**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밑줄 친 시어의 상징성을 파악했으니 이제 답선택의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소멸, 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문맥을 고려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잠을 깨고 나면 꿈은 사라지죠.** 인생이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인생은 순간이란 의미입니다. 제시된 ‘이슬’과 마찬가지로 순간성, 소멸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③이 되는 것입니다.

[해설] ‘이슬’과 ‘꿈’은 모두 ‘순간성, 일회성, 소멸성’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슬’은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것이고 ‘꿈’은 잠을 깨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 ① 눈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② 나뭇잎: 순수성
④ 구름: 자유

9) 문 0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확정(廓正)
② 부상(扶桑)－함지(咸池)
③ 중상(中傷)－비방(誹謗)
④ 갈등(葛藤)－알력(軋轢)

09. [어휘-한자어의 의미] 어휘의 관계 [난이도] 상**[정답] ②**

[분석] 어휘의 관계를 묻는 것은 국가직 시험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문장형이 아닌, 단어형으로 제시되어 조금 당황한 학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장형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단어형일 경우엔 100% 지식형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에서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개 중 3개의 판단이 가능하면 답을 고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 드리니 관계를 정리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① **광정(匡定):**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② **부상(扶桑):** 해가 뜨는 동쪽 바다.
함지(咸池):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
③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비방(誹謗): 남을 헐뜯어 말함
④ **갈등(葛藤):**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이해관계 따위로 적대시 또는 불화하는 일.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됨.

답이 보이십니까? **나머지는 모두 유사 관계인 데 비해 ②는 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②이죠.

이렇게 답은 나왔지만 아마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풀어, 너무 어려워’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③ 중상, 비방, ④ 갈등, 알력’은 그렇다 쳐도 ‘① 광정, 확정, ② 부상, 함지’는 너무 심한단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 교과서 지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공부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피하고 미루고 외면하고 싶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 錯誤狀態(착오 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잘못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음
-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 옛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중요하다고 하니 언젠가 공부는 해야겠으나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덧 내일이 시험이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관동별곡’에는

- 扶桑桑上 咫尺尺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 해 뜨는 곳 근처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란 표현이 나옵니다. (‘부상’을 설명하며 ‘함지’를 겹다리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답을 찍었는데 맞았다는 학생 중에는 이 두 작품에 대한 학습이 된 사례가 많을 겁니다. 예전에 학습해 둔 것이 작용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이 끌려 찍은 것이죠. 평소 실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해설] 나머지 단어가 모두 유사 관계인 데 비해 ②는 반의 관계이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고 ‘함지(咸池)’는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0) 문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10. [] 발화 내용의 이해 [난이도] 하

[정답] ②

[분석] 어휘 문제(2책형 9번)를 풀고 난 다음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기분이었을 듯합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화법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맞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편하게 흐름에 따라 읽어 나가시되 라디오를 듣는다고 상상하며 읽으시면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올 겁니다. 누가 화제를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정리하며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행자는 처음에 ‘우리나라 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며 교수에게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수는 이에 응하여 ‘**판옥선**’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③). 김 교수는 이것이 평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진행자는 이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김 교수가 이를 설명하자 진행자는 ‘**결국~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라며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④). 그리고 마지막 발언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를 통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①). 하지만 김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설] 김 교수는 ‘판옥선’을 선정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진행자의 마지막 발언에서 알 수 있다.
- ③ 김 교수의 첫 번째 발언에서 알 수 있다.
- ④ 진행자의 네 번째 발언에서 알 수 있다.

11) 문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어버이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11. [규범] 띄어쓰기의 이해 [난이도] 중

[정답] ④

[분석] 규범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띄어쓰기’입니다. 난이도를 ‘중’으로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하’로 느끼는 수험생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에게는 오답에 비해 정답이 확연히 눈에 띄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답선지를 읽을 때는 밑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밑줄이 없는 문제기 때문에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평소 학습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

습이 잘되어 있을수록 포인트가 눈에 잘 될 겁니다.

①의 포인트는 ‘**보다**’입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아닌, 비교격 조사이므로 ‘스승이라기 보다는’으로 붙여 적어야 합니다. 몇 번 출제된 단어이므로 기출 문제를 충실히 푼 학생에게 유리한 문제입니다.

②의 포인트는 ‘**같이**’입니다. 여기서는 ‘함께’의 의미가 아닌 비유를 나타낼 때 쓰는 조사이므로 ‘황소같이’로 붙여 적어야 합니다. 역시 몇 번 출제된 단어입니다.

③의 포인트는 ‘**커녕**’입니다. 의존명사로 오해하기 쉬우나 보조사이므로 항상 붙여 적어야 합니다. 역시 몇 번 출제되었으므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겁니다.

④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는 관형사이고 ‘것’은 대명사이므로 ‘그 것’으로 띄어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것**’은 ‘**그**’와 ‘**것**’이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즉, 한 단어이므로 붙여 적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그것/이놈, 저놈, 그놈’ 등 ‘이, 그, 저’가 더해진 합성어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기본이론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해설] ④는 띄어쓰기가 옳다. ‘그것’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적는 게 맞다.

[오답풀이]

- ① 스승이라기 보다는 → 스승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다.
- ② 황소 같이 → 황소같이: ‘같이’는 비유(적유)를 의미하는 조사다.
- ③ 밥은 커녕 → 밥은커녕: ‘커녕’은 보조사다.

12) 문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_____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바다 위에 긴 짚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음: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12. [어휘-고유어] 고유어의 의미 파악 [난이도] 중

[정답] ②

[분석] 2015에는 나오지 않은 고유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맞춤법의 색깔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①, ④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제쳐 두었을 겁니다(맞는 설명이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 역시 일단 제쳐 두었을 겁니다(아차피 모르니까요). 어느 쪽이든 고민은 ②, ③ 중에 했을 겁니다.

② ‘안갯음[안:가품]’은 1)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려다 주는 일. 2)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로 반포(反哺)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모르더라도 ‘**안갯음**’이란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단어의 표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②가 틀렸다는 것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 단어를 알고 있더라도 표기를 ‘안갯음’으로 알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처음에 맞춤법의 색깔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③의 ‘불쌍’ 역시 맞춤법 혹은 표준어의 문제에서 ‘**불쌍사납다**’로 많이 본 단어일 겁니다. 의미는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정확히 몰랐다면 하더라도 ‘불쌍사납다’의 뜻을 떠올리면 ③의 정오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해설]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안갯음’이다. 참고로 ‘안갯음’은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뜻하고 ‘대갯음’은 ‘남에게 입은 은혜나 남에게 당한 원한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갚음.’이다. 나머지는 문제에 제시된 뜻이 모두 맞다.

13) 문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열금열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별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코발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판지가 땅긴다.

13. [규범] 표준어의 이해 [난이도] 상

[정답] ①

[분석] 표준어가 출제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제된 단어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함정도 있어서 만만치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2011년 8급 국회직 문제에서 ‘콧망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틀린 사례였는데요,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의미하는 **표준어**는 ‘**코**

_____’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출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는 최근에 추가된 표준어이기 때문에 맞는 선택지라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③, ④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둘 다 표준어 규정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기출문제를 꼼꼼히 학습한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입니다.

특히 ③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함정 선택지거든요. ‘긱밥’은 의미에 따라 방언도 되고 표준어도 되는 단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긱지’라는 뜻으로 ‘긱밥’을 쓰면 비표준어입니다. 하지만 ‘긱볼(긱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이란 뜻으로는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장형인 것입니다. ③의 문맥 ‘긱밥이 훅 달아오르면서’를 준 것은 이것이 ‘긱지’의 의미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긱밥’이 의미에 따라 표준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승부는 ‘긱방울’이 표준어라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에서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설】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의미하는 표준어는 ‘긱방울’이다. 나머지는 모두 표준어이다.

【오답풀이】

- ② 눈초리: 귀 쪽으로 찌진 눈의 구석.
- ③ 긱밥: ‘긱볼’과 복수 표준어
- ④ 장딴지: 종아리 뒤쪽의 살이 볼록한 부분

14)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닳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 ①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14. [문학] 내용의 이해 [난이도] 중

【정답】 ④

【분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번쯤은 봤을 법한 작품인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독해력으로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헛갈리는 내용이기 합니다. 하지만 정답의 근거는 꽤 분명하므로 정답은 비교적 쉽게 찾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이 문제가 고마운 점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답선지 4개 중 3개가 옳은 내용이 됩니다. 이는 **우선 답선지의 내용을 다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용을 정리했을 때 뭔가 말이 안 맞는, 논리가 튀는 한 녀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녀석이 바로 답입니다.

우선, 지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문은 ‘거사’의 대답이 주가 됩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글의 끝에 있는데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5번 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주장이 나올 때는 그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항상 핵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거사’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현재 세상에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 추한 얼굴을 보느니 (거울이) 흐려진 대로 두는 게 낫다,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닦아도 된다, 거울의 맑은 바탕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답선지의 내용이 모두 맞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은 거사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해석하면 거사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됩니다. 잘생긴 사람이 적으니깐요.
- ②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생긴 사람이 적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적다, 곧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것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난 후 본바탕을 드러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거사의 처세관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겠다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려고 했더니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③에서 거사의 처세관을 확인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사가 **현실에 맞서고자 했다면 못생긴 사람을 교화하거나 그와 싸우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결백한 자세라면 거울을 흐린 채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④는 아무래도 이상한 답선지입니다.

【해설】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거사는 그 반대로, 부정적인 세상에서는 거울을 흐린 채로 두었다가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거울을 닦겠다는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이고 있다.

15) 문 15.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_____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 ③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 ④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15. [작문] 퇴고하기 [난이도] 하

【정답】 ③

【분석】 작문 영역의 문제 중 ‘퇴고하기’입니다. 유형은 익숙한 유형이어서 반가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퇴고하기’는 본래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문법, 규범적인 요소 외에 내용적, 구조적, 어휘적 요소까지 골고루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객관식으로 문제화되었을 때는 좀 더 쉬워집니다. 답선지에 제시된 내용대로 고쳤을 때 어색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퇴고’보다 훨씬 간편한 겁니다. 글의 내용을 읽으며 기호가 있는 부분에서 답선지의 지시대로 바꿔 읽어 보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①은 접속어입니다. 접속어는 글의 흐름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①의 앞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의 앞은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①의 내용대로 ‘그러나’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소득 격차는 인정한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은 두고 볼 수 없다’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①은 속담입니다. ①은 익숙지 않은 속담이어서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①의 앞에 ‘단편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것과 ②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이 어울린다는 것이죠. ①을 ②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③은 앞의 ‘옥하거나’와 이어지는 것이므로 우선,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여야 하고 되도록 ‘~하다’의 형태가 활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A하거나 B해서는 안 된다’**의 꼴이 되어 대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단어 ‘경원’에 ‘하다’가 결합된 **‘경원하다’를 쓰거나 ‘경원시하다’를 활용**해야 합니다. ③에 제시된 대로 ‘경원을 사서는’을 바꾸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의 목적어가 또 추가되어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경원(敬遠)’은 ‘공경하되 가까이하지는 않음.’이란 뜻으로 ‘그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의 경원을 산 적이 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문장에서는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2단락은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 촉진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 제시된 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해설】 ③의 내용대로 본문을 고치면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경원을 사서는 안 된다’가 된다. 그러면 ‘사다(사서)’의 목적어 ‘경원을’이 추가되면서 문장의

이상해진다. ㉔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로 고치는 게 자연스럽다. 문장 전체의 목적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고 이들을 ‘욕하거나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인 것이 맞기 때문이다.

16) 문 16. 안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는 교정이 넓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 ④ 대화가 어디로 될지 아무도 몰랐다.

16. [] 문장의 성분 [난이도] 상

[정답] ③

[분석] 문장의 성분을 묻는 문제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장의 짜임새를 묻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건 절의 성분을 묻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적잖은 학생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급한 마음에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문장의 구조’만 생각하고 답을 고른 학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하면 충분히 풀어냈으리라 봅니다.

문제에서는 ‘**안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답을 찾으려면 우선, 안건문장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안건문장(절)의 역할**을 보아야 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안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는 것이고 이 중 주성분은 ‘서술절’, 부속성분은 ‘관형절, 부사절’이라는 점입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전체 문장의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①은 서술절(교정이 넓다)을 안은 문장입니다. 이는 주성분에 해당합니다.

②는 명사절(비가 오기)을 안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③은 관형절(아이들이 놀다 간)을 안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관형어는 부속성분에 해당합니다.

④가 제일 어렵습니다. 조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술어의 의미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몰랐다’입니다. 이는 **두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주어는 ‘아무도’이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대화가 어디로 될지’입니다. 따라서 이 절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대화가 어디로 될지’가 무슨 절이냐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자주 문제화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기본이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끝난 문장은 명사절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④ 역시 명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④ 중 고민하다 ③을 답으로 고른 학생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④를 몰랐다면 하더라도 ③은 확실히 관형절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답을 고르는 게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해설]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는 ‘아이들이 놀다 간’이 명사 ‘자리’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즉, 여기서 안건문장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속성분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서술절을 안은 문장: 안건절(교정이 넓다)이 서술어의 역할
- ② 명사절을 안은 문장: 안건절(비가 오기)이 목적어의 역할
- ④ 명사절을 안은 문장: 안건절(대화가 어디로 될지)이 목적어의 역할

17) 문 17.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그는 적의 ㉠ _____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使噓
- ② ㉡-間涉
- ③ ㉢-缺陷
- ④ ㉣-剔抉

17. [어휘-한자] 한자의 표기 [난이도] 상

[정답] ②

[분석] 2010년 이후 9급 국가직 시험에서는 한자가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6년 만에 출제된 한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100%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맞히거나 찍어서 맞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다’란 뜻의 ‘**간섭**’은 **방패 간(干)에 건널 섭(涉)**을 쓰는 단어입니다. ②를 보면 ‘간’에 사이 간(間)을 썼는데요, 답선택지에 제시된 총 8개의 한자 중 가장 쉬운 글자, 눈에 띄는 글자를 써서 수험생을 안심하게 만들려는 함정으로 해석됩니다.

[해설] ‘간섭’의 한자는 干涉(방패 간, 건널 섭)이다.

[오답풀이]

- ① 使噓(하여금 사, 부추길 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③ 缺陷(이지러질 결, 빠질 함):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흠이 되는 부분.

④ 剔抉(바를 척, 도려낼 결): 모순·결함 등을 찾아내어 깨끗이 없앴.

18) 문 1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18. [문학] 표현방식의 이해 [난이도] 중

[정답] ④

[분석] 난이도를 중으로 할까 상으로 할까 고민하다 ‘중’으로 하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른 학생이 있다면 문제 푸는 센스가 매우 뛰어난 학생일 겁니다. 사실 문제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물었으니 웃긴 건가 싶기는 하지만 사실 아무리 읽어도 어디가 웃기다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의 지문이니, 여기서 답을 찾았다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니지요.

정말 어디가 왜 웃긴걸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단락 중 어디가 핵심 일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포인트가 떠오르면 그와 가까운 답선택지를 찾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답선택지에서 지문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선, 두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1단락에는 진드기에 관한 객관적 정보만 있으나 2단락에는 **필자의 생각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인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에서 웃음이 유발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몰두(沒頭)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한자도 병기해 주었습니다. 강조를 위한 것이죠.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일 겁니다. 앞에서 몇 번 말했듯이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의 의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몰두’의 의미는 ‘어떤 일에 집중함’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앞에 나오는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파고들다가 죽는다’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머리가 가라앉다’의 ‘沒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어휘 사용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를 뭐라고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스스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식이니까요. ①을 봅니다. 동음이의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답이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②와 ③은 지문과 너무나 관련이 떨어집니다. 미련 없이 지나갑니다. ④를 봅니다. “**보통 쓰이는 의미(몰입, 열중)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머리가 가라앉다)로 짐짓(일부러) 받아들여서**”를 읽는데 딱! 이 녀석이거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너로구나. 반갑다. 속으로 외치면서 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을 의미하는 단어인 ‘몰두’의 한자는 沒頭(가라앉을 몰, 머리 두)이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드는, 진드기가 몰두하는 모습을 ‘머리가 가라앉다’고 표현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는 ‘배[梨-腹]’과 같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하지만 ‘몰두(沒頭)’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서’ 사용하지도 않았다.
- ③ 진드기에 관한 관찰은 있지만 이를 ‘우스꽝스러운 생태’라고 할 수는 없다.

19) 문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월요, 어델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세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 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 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델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꼭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 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①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9. [] 서술상의 특징 [난이도] 하

[정답] ②

[분석] 가장 기본 유형인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물론 문제의 형태는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지만 소설에서 서술자가 하는 일이란 ‘서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도 그리 낯설지 않은 염상섭 선생의 작품이구요. 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은 시점과 관계가 깊으니 우선 시점부터 확인하며 읽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의 첫 부분은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서술자는 자신이 들은 대화를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와 같은 **평가를 조금씩 곁들이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의 두 번째 부분에는 중요한 정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선택지 4개 중 2개(①, ③)를 지울 수 있습니다. ‘나’가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이 1인칭 시점 즉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작품 밖’이란 표현은 더 볼 것도 없이 지워야 합니다. 남은 선택지 ②(관찰하며 평가)와 ④(작품 밖 서술자와 교차 서술)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됩니다.

다시 지문으로 와서, 중략 이후 부분에는 대화를 들은 화자의 생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는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와 같은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다른 서술자와 번갈아 서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설] 제시된 지문에서 작품 속 서술자인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물을 관찰, 평가하고 있다.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과 같은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선택지의 내용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 관한 내용인데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③ 선택지의 내용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관한 내용인데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④ 선택지의 내용은 1인칭 서술자와 3인칭 서술자가 교차 서술한다는 내용인데 지문과 관계가 없는 설명이다.

20)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연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 기>

대화(1) ㉠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 **55 kg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으며?

㉡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 너 몇 살이니?

㉡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 점심은 뭐 먹을래?

㉡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20. [비문학] 구체적 사례의 적용 [난이도] 중

[정답] ①

[분석] ‘협력의 원리’는 ‘화법’에서 배우는 것이므로 ‘화법’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보기>에 제대로 적용**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비문학’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을 고르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우선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시된 네 가지 ‘협력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의 격률 -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둘째: 질의 격률 - 진실한 정보만 제공하라.

셋째: 관련성의 격률 -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

넷째: 태도의 격률 -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보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에서 묻는 것과 ㉡의 대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화(1)의 질문은 ‘체중’입니다. 이의 대답은 ‘55k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물어보지 않은 정보를 더 말한 것이죠. 이는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55kg’뿐이니까요. 그런데 ㉠에서는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답이겠지만 혹시 모르니 다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2)의 질문은 ‘시민 운동회가 있었니?’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응/아니’로 충분하겠죠. 그런데 제시된 대답은 여기에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입니다. 이는 **두 가지 격률을 위배**했습니다. 하나는 **‘양의 격률’**이고, 또 하나는 **‘질의 격률’**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니 진실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②는 맞습니다.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으니까요.

대화(3)의 질문은 ‘너 몇 살’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열다섯 살’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자가 요청하지 않은 형의 나이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정보기 때문입니다. ③은 맞습니다.

대화(4)의 질문은 ‘점심 뭐 먹을래’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김치찌개’나 ‘냉면’ 정도로 대답하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은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조금 헛갈렸을 겁니다. 뭐라고 판단해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는 필요 이상의 정보는 아니므로 ‘양의 격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우십시오. ‘질의 격률’도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한 것도 아닙니다. 동문서답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 점심 메뉴를 물었고 ㉡은 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메뉴를 결정하지 못한 것뿐이죠. 즉, **간결하게 대답을 하지는 못하고 모호한(불분명한)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따라서 ④의 내용대로 **‘태도의 격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 대화(1)은 필요한 정보인 체중 외에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제시된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했다는 것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대화 맥락에 어긋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너 속제는 했니?’란 물음에 ‘나는 빵을 좋아해’라고 대답하는 것이 해당한다.

[오답풀이]

- ②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 ③ 형의 나이를 말한 것은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 ④ 불분명하게 말한 것은 태도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